

예배 및 모임안내

2019-33호 2019년 08월 18일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시35분	교육관 5번 교실
청년 기도모임	월 1회	교육관 7번 교실
말씀 나눔 모임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성경 읽기 모임	매 주일	교육관 5번 교실
구역 모임	월 1회(구역 별)	구역 별 결정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행복을 나누는 건강한 교회(삼하7:21~29)”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25	09. 01	09. 08
대 표 기 도	유미영 집사	정용현 집사	김효종 집사
성 경 봉 독	유미영 집사	장용환 형제	김효종 집사
헌 금 위 원	김효종 집사	김효종 집사	박재기 집사
안 내 위 원	유미영 집사	김영희 권사	김영희 권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우세요 (행18~28장, 잠1~6)
2. 월례회 - 예배 후 여전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3. 천막 전도집회 - 8월 31일(토)~9월15일(주일)까지 열립니다. 자체 예배드립니다.
4. 나눔의 시간 - 임미수, Enno Schwass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정용현 집사(23일, 음.7.13)
새 교우	조정화, Markus Jo(Rhede 거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육체적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해서
2. 천막집회(8월 30일(금)~9월15일(주일)를 위하여
3. 김선태, 장보경 협력선교사(성진, 예린, 주 허트번, 헝가리) 사역을 위하여
4. 전도, 선교, 구제에 힘쓰는 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기 원 Altargebet 정용현 안수집사
- *찬 송 Gemeindelied 10장 다같이
- *성시교독 Wechsellesung 교독문 60번 다같이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535장 다같이
- 기 도 Gebet 김영희 권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렘 12 : 14 -17(구p1071)..... 김영희 권사
(Jeremia 12:14-17)
- 설 교 Predigt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539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314장(1, 2절)..... 유미영 집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폐회찬송 Schlusslied 54장 다같이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한민 성가대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Bitte erheben Sie sich)**

성도의 교제 친교실

영적 전쟁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끊임없이 자기중심주의를 배격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야, 너는 이 세상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살아 있는 동안 너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 너는 사방의 적에게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네가 사방을 인내의 방패로서 방어하지 않으면 이내 상처를 입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인내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네 마음을 내게 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적의 맹렬한 공격에 무너져 축복된 자를 위해 준비해 둔 승리를 거머쥐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 길을 방해하는 것들에 맞서 강한 손으로 싸워야 한다. 정복자에게는 만나가 주어지지만 나태한 자에게는 불행이 기다린단다. 네가 이 세상 삶에서 평화를 찾는다면 어떻게 영원한 평화에 도달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라. 사람에게서도 찾지 말고, 다른 피조물에게서도 찾지 말 것이며, 오직 내 안에서 구하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꺼이 참아야 한다. 즉 수고와 슬픔과 유혹과 장애물과 걱정과 욕정과 약함과 상처와 모욕과 비난과 멸시와 혼돈과 견책, 그리고 천대를 참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네 덕성을 키워줄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 Thomas a Kempis
(독일 사상가, 1380 ~ 1471년 7월25일)

*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 된 적은 없다. - Hudson Taylor -
(1832. 5. 21~1905.6.3. 영국 출신 중국 선교사)